

화학공장, 2010년 12% 증가

제조업 전체의 11.8% ... 고용 50인 미만 중소기업 93.2%

제조업 공장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공장도 10%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.

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팩트리온에 등록된 공장설립 통계를 분석한 결과, 2010년 제조업 등록 공장 수는 14만2580개로 전년대비 4.3% 증가했다고 발표했다.

기계가 전체의 29.3%로 가장 비중이 컸고 전기·전자(17.6%), 석유화학(11.8%), 음식료(8.8%) 순으로 나타났다.

공장용지 면적도 6억6623만㎡로 4.0% 늘었다.

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35.9%를 점해 가장 많았고, 경남(9.9%) 경북(7.3%) 서울(7.3%) 인천(6.5%) 등이 뒤를 이었다.

특히, 서울, 인천,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공장용지 면적비중이 전국의 23.4%에 불과하지만 등록 공장 수의 비중은 전체의 49.7%로 나타나 과밀집중 양상이 여전했다.

입지유형별로는 산업단지, 자유무역지역, 외국인투자지역 등 제조기업 집적을 위해 조성된 계획입지 입주 공장 비중은 31.4%였으나 개별입지 비중은 68.6%를 차지했다.

그러나 2002년 이후 계획입지에 입주하는 제조기업 비중은 계속 늘고 있으나 개별입지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기업규모별로는 고용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93.2%로 가장 많았고, 50-299인 규모 중기업은 5.7%, 300인 이상 대기업은 1.1% 순이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4/08>